

선교사를 위한 금융 및 투자 관련 교육 — 보완 모듈

신학·윤리·현실 맥락

현대 사회의 금융 경제에 대한 선교사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하여¹

연관문서 : [선교사_금융교육안내_정보공유자료](#)

모듈	주제	핵심 질문
보완 A	선입견 해소	주식투자는 투기인가? 돈을 좇는 것인가?
보완 B	자본주의와 신앙	현대 경제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완 C	투자는 노동인가	자본 운용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경제활동인가?
보완 D	이미 작동 중인 제도	국민연금·퇴직연금도 투자다 — 우리는 이미 참여 중이다
보완 E	시드머니와 선교사 상황	소액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
보완 F	헌금과 투자의 윤리	후원금 일부로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가?
보완 G	제도화의 한계와 당위	단체 공식화는 어렵지만 개인이 알아야 할 이유

보완 모듈 A | 선입견 해소

주식투자는 투기인가? 돈을 좇는 것인가?

A.1 선교사들이 가진 대표적 선입견

¹ 기획, 구성 : 경의영 (Joshua E. Kyung, Ph.D)

이 자료는 저자가 2025 년부터 투자 관련 정보를 찾고 경험하며 정리한 문제의식과 논지를 바탕으로, AI 도구(Claude)의 도움을 받아 문서화한 것입니다. 통계 자료는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했으며 저자가 재검증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Personal Reference Notes

선입견	실제 내용	구분
"주식은 도박이다"	도박: 제로섬, 운에 의존 / 장기 지수투자: 경제 성장에 참여	근본적으로 다름
"돈을 좇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닌, 적절한 노후 준비는 가족·사역 지속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동기가 다름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라"	청지기로서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적	신학적 오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음 = 무계획이 아니라 지혜로운 준비를 포함	균형 필요
"복잡하고 위험하다"	ETF 장기 적립은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안전성 높음	지식의 문제

A.2 투기와 투자의 결정적 차이

구분	투기 (Speculation)	장기 투자 (Investment)
목적	단기 시세 차익	장기 자산 형성
방식	예측·타이밍 베팅	분산·적립·보유
기간	단기 (일·주·월)	장기 (5 년·10 년·20 년)
심리	탐욕·공포에 지배됨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않음
위험	매우 높음	기간이 길수록 낮아짐
성경적 평가	경계 대상	청지기 사역의 일환 가능

† 문제는 주식투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도구는 중립적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동기와 방식이 관건입니다.

A.3 부작용의 현실 — 직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실제로 큰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를 외면하면 균형 잡힌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 투자자의 잦은 단기매매는 거래비용을 늘리고,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는 성과와 손실 위험을 키움

Personal Reference Notes

- 빚을 내어 투자하다 가정 파탄에 이른 사례 다수
- 투자에 집착하여 신앙, 사역, 가족 관계가 손상된 사례
- 정보 비대칭으로 개인이 기관·세력에 피해를 입는 구조

💡 이 교육이 가르치는 것은 '단기 거래'나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으로서의 '장기 지수 ETF 적립'입니다.

보완 모듈 B | 자본주의와 신앙

현대 경제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B.1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 구조

과거 농경 사회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활동의 본질을 바꾸었습니다.

시대	주요 경제활동	부의 원천	선교사 연관성
농경 사회	땅과 노동	토지·수확물	자급자족 가능
산업 사회	공장·임금노동	노동 임금	직장 취업 필요
현대 자본주의	노동 + 자본 운용	노동소득 + 자본소득	투자 없이 불리
AI 시대	자본 운용 + AI 활용	자본소득 비중 확대	준비 없으면 취약

B.2 현대 사회의 '개인화' — 더 이상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 공동체와 마을이 개인의 노후를 함께 책임졌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구분	과거 (농경·산업 사회)	현재 한국 사회
노후 부양	자녀가 부모 모심 (효 문화)	각자 독립 노후 준비 (개인화)
공동체 역할	마을·교회가 빈곤층 돌봄	사실상 개인 책임으로 이전
경제적 정체성	가족·공동체 안에서 역할	경제활동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
노후 빈곤 대응	가족 내 해결	국가 제도(연금) + 개인 준비

현대 한국에서 경제활동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망 안에서의 존재 가능성 자체와 연결됩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은 의료·주거·관계에서 모두 취약해집니다.

⚠ "자녀가 봉양해줄 것이다", "교회·단체가 책임져줄 것이다"는 기대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선교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카톨릭'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3 개신교 선교의 구조적 공백

종교별 노후 책임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 개신교 선교사의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종교/체계	노후 책임 구조	선교사 보호
가톨릭	교단(교구)이 사제 노후 지원	강력 (제도화됨)
개신교 대형교단	일부 교단 연금 운영 (교단별 상이)	부분적 (교단마다 다름)
한국 선교단체	파송 후 노후 책임 정책 대부분 없음	사실상 개인 책임
독립 선교사	후원교회와 개인에 전적 의존	매우 취약

† 이것은 한국 개신교 선교 구조의 현실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직시입니다. 이 공백을 개인이 지혜롭게 채워야 합니다.

B.4 AI 시대 — 노동 소득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인터넷 정보화 시대를 넘어 AI 시대로의 전환은 인간의 노동과 소득 구조 자체의 전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대	인간 노동의 특성	소득 안정성
산업화 시대	반복 육체 노동 대체 시작	안정적 임금 구조
정보화 시대	지식 노동도 일부 자동화	전문직도 위협받기 시작
AI 시대 (현재)	창의·판단·감성 영역까지 AI 진출	어떤 직업도 안전하지 않음
선교사의 현실	사역 자체는 AI 대체 어려움	그러나 후원 감소·생활비 증가 위협

- AI 발전으로 많은 직업에서 인간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추세
- 반면 자본(알고리즘·데이터·플랫폼)이 창출하는 소득은 증가
- 결론: '자본을 일하게 하는 것' 즉 투자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
- 선교사도 이 구조 변화의 예외가 아님 — 오히려 더 취약한 위치

💡 AI 시대에도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은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 구조는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B.5 현대 자본주의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의 의미

- 물가는 매년 오른다 (연 2~3%) — 저축만 하면 실질 자산이 줄어듦
- 노동 소득의 한계 — 몸이 멈추면 소득도 멈춤
- AI로 노동 소득의 불안정성 증가 — 자본소득의 중요성 부상
- 선교사는 은퇴 후 노동 소득이 없음 — 자본소득 없이는 국민연금만 의존
- 현대 사회는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가 정착됨, 또한 AI 시대 소득 창출 방법의 변화
- 경제 성장은 K자형 양극화 경향 - K자 상단에 있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성장과실 공유 필요

B.6 그리스도인이 자본주의 체계 안에 사는 방식

두 가지 극단 모두 피해야 합니다.

극단 1 (회피주의)	균형 잡힌 자세	극단 2 (물질주의)
"돈은 더러운 것, 나는 안 한다"	체계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	"더 많이, 더 빨리"
"믿음으로만 산다"	준비와 신뢰의 균형	"수익률이 신이다"
노후 빈곤 위험	청지기적 자산 관리,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님.	탐욕·중독 위험

†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화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잠언 21:20)

†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누가복음 12:42) — 청지기는 주인의 자원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 자본주의를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구조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보완 모듈 C | 투자는 노동인가

자본 운용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경제활동인가

C.1 '노동'의 확장된 이해

성경에서 노동은 단순히 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시간, 재능, 자본)을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떠나기 전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를 땅에 묻은 종은 꾸중을 받았고, 활용하여 수익을 낸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 마태복음 25:14-30

이 비유는 단순히 영적 은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건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C.2 자본 운용이 노동과 유사한 이유

항목	전통적 노동	자본 운용 (장기 투자)
투입 자원	시간·체력·기술	자금·시간·지식
산출물	임금·생산물	수익·배당
사회적 역할	재화·서비스 생산	기업에 자본 공급 → 고용 창출
위험 감수	실직·사고 위험	시장 변동 위험
성경적 평가	노동은 선하다	달란트 비유: 운용은 책임

C.3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없는 현실 — 그래서 장기 투자

Personal Reference Notes

주식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들이 분석 인력, 정보 시스템, 알고리즘을 활용해 경쟁하고 있다.

- 개인이 단기 거래로 기관을 이기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리
- 하지만 기관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음 — '시간'
- 장기 투자자는 단기 변동성에 좌우되기 보다 경제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탑승
- S&P500 20 년 보유 시(배당 재투자 포함) 역사적으로 손실을 기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개인이 기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장기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C.4 역사적 통계가 말하는 장기 투자의 효과

다음은 실제 역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S&P500 ETF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과거 실증 기록입니다. 물론, 과거의 통계가 다가올 미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통계적 타당성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해온 역사적 패턴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보여줍니다. 물론, AI 의 등장으로 경제 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시뮬레이션 : <https://sites.google.com/view/investsimulator/%ED%99%88>

■ S&P500 연도별 수익률 (1990~2024 년)²

² 산출 기준 및 해석상 유의점

① **수익률 기준** — 모든 수치는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수익률(Total Return)**이며, 달력연도(1 월~12 월) 기준으로 복리 합산했습니다. 배당을 제외한 가격지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예컨대 2020~2024 년 구간은 총수익률 기준 +97%이지만 가격지수 기준으로는 +82%입니다. 언론이나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이 기준 차이입니다.

② **명목 수익률** —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기준입니다. 실질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00 년대는 명목 -0.9%/년이었으나 실질로는 -3.4%/년이었고, 1970 년대는 명목 +5.9%/년이었지만 실질로는 -1.4%/년으로 손실이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설계할 때는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연 2~3%)을 차감한 실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원화 투자자의 실현 수익률은 다릅니다** — 위 수치는 달러 기준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TIGER 미국 S&P500 등)는 대부분 환노출형이므로, 원화 투자자가 실제로 얻는 수익률은 **지수 수익률에 원/달러 환율 변동이 곱해진 값**입니다. 환율이 높을 때 진입하면 이후 환율 하락분만큼 수익이 잠식되고, 반대로 환율이 낮을 때 진입하면 환차익이 더해집니다. 이 표를 그대로 원화 수익률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Personal Reference Notes

기간	S&P500 총수익률(배당포함)	연평균 수익률	비고
1990~1999 (10 년)	+426%	+18.1%/년	IT 황금기
2000~2009 (10 년)	-9%	-0.9%/년	닷컴버블+금융위 기 (최악의 10 년)
2010~2019 (10 년)	+257%	+13.6%/년	양적완화 상승장
2020~2024 (5 년)	+97%	+14.5%/년	코로나 후 급등
1990~2024 (35 년)	+3,262%	+10.6%/년	역사적 평균

■ 월 30만원 S&P500 적립 시 실제 성장 시뮬레이션 (연 10% 가정)

투자 기간	총 납입액	예상 평가금액	총 수익	수익률
5 년	1,800 만원	약 2,327 만원	+527 만원	+29%
10 년	3,600 만원	약 6,145 만원	+2,545 만원	+71%
15 년	5,400 만원	약 1 억 2,573 만원	+7,173 만원	+133%
20 년	7,200 만원	약 2 억 2,800 만원	+1 억 5,600 만원	+217%
25 년	9,000 만원	약 3 억 9,646 만원	+3 억 646 만원	+340%

■ 보유 기간별 S&P500 손실 발생 확률 (역사적 데이터)

보유 기간	손실 발생 확률	최악의 경우	의미
1 년	약 27%	-43% (2008 년)	단기는 도박에 가까움
5 년	약 12%	-6% (닷컴버블 시작)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10 년	약 5%	-1% (1999 년 고점)	거의 손실 없음
15 년	약 0%	최저 +30%대	역사적으로 항상 플러스
20 년	0%	최저 +54%	손실 사례 없음

💡 이 통계는 과거 데이터 기반이며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과 S&P 500 의 장기 자료는 단기 변동성보다 충분한 투자 기간과 분산, 배당 재투자가 이루어질 때 긍정적 투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5 왜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인가

이것은 미국 편향이 아닙니다.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	코스피 (한국)	S&P500 (미국)
30 년 평균 수익률	연 5~6%	연 10~11%
시장 구조	세계 15 위 수준	세계 최대 주식시장, 글로벌 시가총액의 약 60%+
변동성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외국인 영향력	수출, 외국인 자금 영향 큼	거대한 내수 시장 + 글로벌 기업
경제 독립성	수출 의존도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	내수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 강함
지정학 리스크	북한·중국·중동 모두 영향	직접 영향 제한적

핵심 논리: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구조로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 상황에 직접 연동됩니다.

- 한국 수출의 약 17%가 미국으로 향함
- 코스피는 미국 나스닥·S&P500의 등락에 약 0.7 수준까지 높은 동조성을 보임
- 미국 경기, 증시의 충격은 한국 증시에 더 크게 전달될 수 있음
- 즉, 미국 증시 투자는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과 글로벌 기업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임.

종합: 한국과 미국 증시는 모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 증시는 수출과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충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반면 미국 S&P500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장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지수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으로 더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한국 시장에 집중하기보다 미국 대표지수를 코어 자산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상승에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AI·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글로벌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상승률이 향후 10~15 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C.6 국민연금은 이미 '투자'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 국민연금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자산에 투자
- **2026년 5월 말 국민연금기금은 약 1,849조원** 규모
-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운용되고, **운용수익은 연금재정에 기여**
- 개인이 받는 국민연금액은 **자신의 투자수익률에 직접 연동되지 않고 법정 산식에 따라 결정**
- 따라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나 주식투자와는 다르지만, 거대한 규모의 '국민 공동 투자기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연금 유형	운영 주체	투자 대상	수령 방식	개인 인식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주식·채권·부동산 등	법정 산식에 따른 연금	"당연한 제도"
퇴직연금(DP)	회사 중심	주식·펀드·채권 등	사전에 정해진 퇴직 급여	"회사에서 해주는 것"
퇴직연금(DC)	본인 운영	예금·펀드·ETF 등	적립금 + 운용성과	"내가 운용"
IRP	본인 운용	예금·펀드·ETF 등	적립금 + 운용성과	"내가 선택"
연금저축	본인 운용	예금·펀드·ETF 등	적립금 + 운용성과	"내가 선택"
주식·ETF 직접투자	본인 직접	개별주식·ETF	시장 성과에 따라	"투기 선입견"

💡 국민연금도 결국 우리의 노후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느냐, 공적연금 제도를 통해 공동으로 운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투자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3 층 연금 구조의 이해

D.1 3 층 연금 구조

현대 한국 사회는 노후 소득을 3 가지 층으로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층: 개인연금 / 개인 투자 (선택)

2 층: 퇴직연금(IRP) (직장인 의무, 선교사 해당 없음)

1 층: 국민연금 (의무)

한국은 이 세가지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사회 안에 작동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방법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해외 투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2 선교사의 3 층 구조 현실

층	일반 직장인	선교사	대응 방안
1 층 (국민연금)	회사·개인 반반 납부	지역가입자 전액 개인 납부	납입 지속 유지
2 층 (퇴직연금)	회사 의무 적립	해당 없음 (사각지대)	ISA·개인연금으로 대체
3 층 (개인)	선택적 가입	스스로 준비해야 함	ISA + ETF 투자

⚠️ 선교사는 2 층(퇴직연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 직장인보다 스스로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교육이 필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사실,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문서에서 다루는 이슈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D.3 일반 사회인과 선교사의 노후 비교

구분	일반 직장인 (30 년 근무)	선교사 (30 년 해외 사역)
국민연금	월 100~150 만원	월 40~80 만원 (납입 불규칙)
퇴직연금	1 억~2 억원	없음 또는 교단연금?
개인연금	선택 가입	선택 가입
기초연금	소득 기준 심사	소득 기준 심사
합계 월 수입	200~300 만원 가능	80~100 만원 수준

💡 이 차이를 매우는 것이 ISA(+연금저축)와 ETF 장기 투자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완 모듈 E | 시드머니와 선교사의 유리한 조건

소액이라도 가능한 현실적 조건과 전략

E.1 시드머니(종잣돈)의 중요성

적립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일정 금액의 시드머니가 있으면 복리 효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시드머니	월 적립	20 년 후 (연 8%)	차이
0 원	30 만원	약 1 억 764 만원	기준
500 만원	30 만원	약 1 억 3,080 만원	+2,316 만원
1,000 만원	30 만원	약 1 억 5,396 만원	+4,632 만원
2,000 만원	30 만원	약 2 억 28 만원	+9,264 만원

- 시드머니 출처: 귀국 후 정착 지원금, 안식년 재정, 부모 유산, 일시적 후원 증가
- 시드머니가 없어도 괜찮음 — 적립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단, 장기 투자 필요)
- 단, 시드머니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고 3~6 개월 분할 투자 권장

E.2 선교사에게 유리한 조건들

선교사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투자 측면에서 의외의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용	투자에 주는 의미
장기 해외 체류	보통 10 년 이상 사역	장기 투자 기간 자동 확보
낮은 생활비 의존	사역지에서 소비 제한적	여유자금 투자 가능성
세금 혜택	종교인 소득세 특례	ISA 절세 효과 극대화

조건	내용	투자에 주는 의미
단순한 생활	물질적 욕심 상대적으로 적음	투자 중독 위험 낮음
강한 미래 지향	사역의 지속성 생각하는 사람들	장기 관점 유지 용이

E.3 국민연금과 다른 ETF 투자의 장점

항목	국민연금	ETF 적립 투자
납입 의무	의무 (미납 시 불이익)	자유 (상황에 따라 중단·재개)
납입 금액	소득의 9% 고정	월 1 만원도 가능
중도 인출	불가 (특수 상황 제외)	가능 (단, 복리 효과 상실)
수령 시점	만 63~65 세 고정	자유 (필요 시 언제든지)
수익률	국가 보증 (약 3~4%)	시장 성과 (역사적 8~10%)
유연성	매우 낮음	매우 높음

💡 ETF 투자는 국민연금의 '보완재'입니다. 대체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유지하면서 ETF를 추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후원금 일부로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가

⚠ 이 모듈은 이 교육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과 사고의 틀을 제공합니다.

F.1 핵심 질문

"성도들이 헌금한 선교비를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관점이 공존합니다.

F.2 찬성 논거

- 선교사의 소득은 후원금이 전부 — 생활비도, 노후 준비도 모두 여기서 나옴
- 직장인이 월급으로 연금 납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음
- 청지기로서 받은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의무
- 노후 빈곤 선교사는 결국 교회와 단체에 더 큰 부담이 됨
- 국민연금(의무)도 후원금에서 납부 — 이미 선례가 있음

F.3 반대·우려 논거

- 후원자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했지 투자를 위해 헌금하지 않았음
- 투자 손실 발생 시 후원자·교회와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
- 투자에 마음을 빼앗겨 사역 집중도가 낮아질 가능성
- 단체 내 불균형 (일부만 이익을 보는 구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
- 투기성 투자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위험

F.4 윤리적 판단의 기준 제안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질문	판단 기준
이 돈은 '사역비'인가 '생활비'인가?	생활비로 받은 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은 직장인과 동일
재정보고서에 공개할 수 있는가?	투명하게 알릴 수 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 없을 가능성 높음
손실 시 감당할 수 있는가?	여유자금이 아닌 필수 생활 자금을 투자하면 안 됨
이것이 사역을 방해하는가?	사역 집중에 지장을 주면 중단해야 함
단체의 재정 지침을 따르는가?	소속 단체의 원칙을 먼저 확인해야 함

F.5 사회적 이해와 합의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단체가 공식 제도화하기 어려운 이유: 후원자 반응, 재정 투명성, 손실 책임 소재 불명확
- 그럼에도 개인이 알아야 할 이유: 단체가 해결해주지 않는 노후 문제는 결국 개인 몫

- 현실적 접근: 사역비·생활비 명확히 구분 → 생활비 중 여유분을 투자

결론적 제안 및 현실적 대안 : 이상적으로는 선교 단체 역시 제도적 '퇴직연금' 체계를 도입하여, 노후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장-개인'의 연계 속에서 자동 적립과 자산 운용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다수의 서양 선교 단체나 기관들이 이와 유사하게 5~10% 수준의 적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교사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파송 단체와 교회, 선교사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 교육이 그 실질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국의 대다수 선교단체의 구조적·재정적 여건상 전면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즉각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단체 정관이나 운영 매뉴얼에 "선교사는 생활비 관련 후원금의 5%~10% 범위 내에서 개인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현황을 재정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록한다"는 조항을 두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을 가집니다. 첫째, 개인연금 운용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선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이나 죄의식을 해소합니다. 둘째, 재정보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로 공동체 내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하지 않은 제도 환경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 지피선교회의 경우 운영 매뉴얼의 제 2 항 4 조에 월 US \$200(싱글 \$100) 기준으로 '은퇴연금'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정액'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에 대한 내용이고 '운용'에 대한 안내가 없기에 실제 이행과 은퇴 시점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후 자산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완 모듈 G | 제도화의 한계와 당위

단체 공식화는 어렵지만 개인이 알아야 할 이유

G.1 왜 단체 공식화가 어려운가

장벽	내용
후원자 관계	"헌금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인식 문제

장벽	내용
책임 소재	손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가
형평성	일부 선교사만 혜택을 보는 구조 문제
전문성	단체 내 투자 교육·관리 역량 부재
신학적 합의	아직 한국 교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음

G.2 그럼에도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1. 선교사의 노후 빈곤은 이미 현실이며 심화되고 있음, '금융' 지식의 부재 또한 문제를 재생산
2. 단체가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을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함
3. 알지 못하면 선택조차 할 수 없음 — 알고 나서 선택 안 하는 것과 다름
4. 이미 선교사들 일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교육과 정책 지침없이 하는 것이 더 위험
5. AI 시대의 도래, 경제활동의 근원적 변화
6. 이 교육은 공개 강의가 아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G.3 이 교육의 올바른 위치

구분	내용
이 교육이 하는 것	투자의 구조와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이 교육이 하지 않는 것	특정 투자를 권유하거나 단체 정책으로 제도화
최종 결정권자	각 선교사 개인 (신앙, 상황, 단체 지침 고려)
단체의 역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논의

G.4 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 교육 자료를 공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거나 대규모 세미나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그룹 선교사 나눔 모임: 10 명 이내의 소규모로 정보 공유
- 개인 멘토링: 관심 있는 선교사에게 1:1 로 안내

Personal Reference Notes

- 선교사 가정 재정 세미나: 가계 재정 관리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포함
- 온라인 자료 배포: 개인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돈을 좇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감당하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완 자료가 선교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대화와 지혜로운 준비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